

작업실 탐방

천불토판 만드는 최인한 화백

부처님 생애 1천흙판에 담는다

삶의 향기·희망담긴 우리들 모습 형상화

1천개의 토판(土板)위에 부처님의 표정과 모습을 천(千)의 형상으로 그려내고 있는 종견화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치악산 구룡사를 오르는 왼쪽 산자락의 아담한 콘서트 작업실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흙과 씨앗대로 형상화 시키고 있는 최인한화백(한국화).

“천원일률적으로 그려지고 조각돼 있는 사찰의 천불도는 인간이 상형화돼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우리 삶의 향기와 희망을 그렇게 내뿜어줄 수는 없습니다.”

최화백은 화가로서의 정열과 세상의 윤리 도덕을 천불도를

통해 담아내고자 한다. 때문에 기존관념에서 벗어난 기복신앙적 대상이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재조명된 부처님의 모습을 천의 형상으로 그려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완성한 작품은 1백 50여점. 부처님의 생애를 출생에서 출가(29세)까지 갈등과 고뇌의 초기로, 29세에서 35세가 지를 고행·성불·해탈의 중기로, 35세이후부터 열반까지를 중생구제의 설법기간 및 성불의 말기로 구분, 다양하게 구상 중이다. 초기 모습 3백점, 중기 모습 4백점, 말기 모습 3백점으로 그려낼 계획이다. 그러나 언제 완성될지 기약은 없다.

최화백의 작업은 여느 화가

의 기법과는 다르다. 우선 붓을 쓰지 않는다. 흙으로 회판을 만들어 씨앗대를 꺾어서 그림을 그린다. 물감도 손바닥과 걸레로 칠한다. 어떤 때는 완성된 토판을 구두닥이처럼 운이내게 문지르는 경우도 있다. 물감이 토판에 제대로 스며들도록 걸레로 여러차례 색칠을 하고 또 다듬겨려 중후한 색감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신중하지 못한 색깔의 선택 때문에 부처님의 표정이 가벼워서는 그 마음의 깊이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부처님의 영원한 진리를 현대회화로 다양하게 그리고자 합니다.”

어린시절의 석가모니,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번뇌를 쫓고 있는 부처님, 고개를 갸웃하고 두 손으로 땀을 부동켜 안은 현대간각이 물씬 풍기는 부처님. 뭇사람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부처님의 모습, 생활의 편린 속에서 문득 문득 떠올리는 상상의 부처님을 그리는 것, 그것이 천불도를 조성하는 그의 영원한 것이다. 최화백은 1천점의 부처님이 완성되면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어떤 작품은 한점, 어떤 작품은 7점, 어떤 작품은 1백8점을 모아 집합된 모습, 또는 개별적인 표정으로.

원주=도필선 기자



1천개 토판에 부처님 생애를 새기고 있는 최인한화백.

불심시심 <21>

꽃가지에 오른 새

蜘蛛結網徒勞想 그물 짜는 거미, 헛된 수고로움  
(지주결망도로상)  
可笑山僧亦有爲 하얗는 산승 역시 가소롭구나  
(가소산승역유위)  
高臥石欄依本覺 돌 난간 높이 누워 부처께 기대이니  
(고와석란의본각)  
一聲啼鳥上花枝 한 곡조 우는 새 꽃가지에 오르네  
(일성제조상화지)

윗 시는 조선조 정허대사의 제자 중 한 분이었던 종관(中觀)대사의 시 용문한거(龍門閑語) 2수 중의 한 수이다. 용문사에 계시면서 산수의 자연을 읊은 시이다. 그렇지만 자연을 예찬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한 큰 깨우침을 얻으려 한 시이다.

거미가 그물을 짜는 것은 삶의 본능일 것이다. 그물 자체가 제 몸을 지탱하는 의지가 되기까지 그 자체가 제 먹이의 공급처이다. 지나가는 날리들을 잡아 매 었다가 제 먹이로 삼는 곳간 구실도 한다. 그러나 스님이 보기에는 헛된 수고로움의 발상이라는 것이다. 저렇듯 괴물이 움직이지 않고도 사는 또 다른 미물들도 많으니 말이다.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 하여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산승을 또한 우습다는 것이다. 이는 스님이 자신의 행적을 뒤돌아 보며 거미의 헛된 수고와 견주어 본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사는 서산대사의 문도로 임진란이 일자 영남에서 의병을 일으켜 승군을 통수했던 본으로 호남지방의 영규(靈圭)대사와 맞수를 이룬 분이다.

이 시는 이러한 전란을 겪고 다시 산중으로 들어가 한 가마이 지내면서 지은 시라고 여겨진다. 그러기에 자신과 같은 스님들이 세속의 일에 힘쓰는 것이 마치 거미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 몸의 분비물을 빼내어 제 집이나 제 곳간을 짓는 일만큼이나 부질없는 일이라 여겼던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돌 난간에 누워 있을 때 꽃가지에 오르며 우는 새의 울음이 마치 이 산하대지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사자후에 맞먹는 진여의 설법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휴연대오하는 것이 때로는 산승의 일상사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시는 분명한 거미와 한가로운 새의 울음이 라는 극단의 대칭에서 중도적 진리를 깨우침은 아닐까. 이종천 (동국대 교수)

부산불교음악지도자협 내달 4일 창립

인사부 김성국 회장

“부처님의 찬탄법음인 찬불가는 아직까지 시작의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교예술 중에 조각, 건축, 불화 등과 비교해 보면 대조적입니다. 부산불교음악지도자협회는 찬불가의 위상을 한층 높이기 위한 학문적 모임을 합니다.”

내달 4일 부산불교음악지도자협회 창립 기념음악회

신예작곡가 찬불가 '하모니'

7월1일 신인불교음악회...사찰 합창단 공연도

신예 작곡가들이 신작 찬불가를 소개하는 무대가 마련된다.

7월1일 오후7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신인불교음악회는 대학원을 갓 졸업했거나 현재 재학중인 음악인들이 꾸미는 무대. 이날 무대는 중앙대 정부기교수가 기획한 것으로 이진구, 최은숙, 김수미, 현연주씨들의 '삼귀의-피아노', 클라리넷 변주곡 '사후사원-피아노·대금 변주곡'을 비롯 조영조씨의 '두메마을' 등이 발표된다.

(본지 29호 참조)

또 칠보사, 삼보사, 범안정사 등 사찰 합창단의 합창곡 '날마다 부처님 오신날' 등도 공연된다.

임효씨 부조 판화전 30일까지 가산화랑

'반야심경' '무위자연' 등을 주제로한 임효씨의 도부조판화전이 16일부터 25일까지 동산방화랑과 가산화랑(30일까지)에서 각각 열린다.

분청사기를 회화영역으로 끌어들이고 한지판화라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 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임효씨는 이 전시회를 통해 도부조판화의 순박한 질감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관화의 질감을 바탕으로 형상화된 반야심경등의 불교적 세계

하는 독특한 과정을 거친 임씨의 작품은 일반 관화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시도이다. 3년전부터 이 관화 제작에 몰두해온 임씨는 이번 전시에서 도부조판화를 처음 선보인다.

'천불·천탑·꿈' 전시회 김부견씨 '존재의 가치' 추구

김부견씨의 '천불·천탑·꿈'전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의 일정으로 전주 정갈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운주사 천불천탑 계곡에서 본 탑과 불상들의 이미지에 꽃, 새들의 형상을 결합시켜 천진무구의 세계를 그려낸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실재하는 역사의 흔적과 작가의 상상력이 결합된 김씨의 작품들은 '꿈'이라는 주제 속에서 새롭게 던져지는 존재의 가치를 찾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당시집 영문판 출간 케빈오로크 교수 번역

미당 서정주 시인의 영문판 시집이 최근 영국에서 간행됐다.

'떠돌이의 시(Poems of a Wanderer)'를 표제로 한 이 시집을 경희대 영문과 케빈 오로크교수가 번역했으며 영국 데탈러스출판사가 펴냈다. 출판사들은 올 가을에 영국에서 원작자, 번역자등을 초청, 출판기념회를 갖고 한국문학 추후번역출판도 논의할 계획이다.

“찬불가 학문차원 접근 새 영역 개척할 터”

(오후 6시 파라다이스 호텔) 업과 함께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찬불가들을 다양하게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도자협회 회원들은 각기 성악, 작곡, 피아노, 바이올린 등 전공분야가 다양한 찬불가 확산보급의 질적 토대는 단단하다고 말하는 김교수는 “1950년대부터 70년대 서정업, 김용호씨 등에 의해 그 명맥이 이어져온 찬불가는 이제 그 토양을 양분삼아 전통의 순수성과 현대의 대중성이 접목하는 한차원 높은 것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병근 기자

문화재 소식

외국 유출 古典籍 영인화 학계·일반 활용 가능케

국립중앙도서관은 외국에 유출된 우리나라의 희귀 고전적(古典籍) 자료를 해외 현지조사를 통해 영인·수집하여 학계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이라는 취지하에 87년부터 '해외유출

표충사 석탑 유물 19점 또 출토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표충사 경내 3층석탑(보물 제467호)에서 지난 14일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보이는 금동 불상등 19점의 유물이 또다시 출토됐다.

문화재관리국과 밀양시는 3층석탑 보수를 위해 해체작업을 계속 하던중 지난 3일 명문석 등 11점의 유물이 나온 데 이어 14일 오후에도 석탑기단부에서 모양과 크기가 각기 다른 금동불상 15

구와 장신구형의 탐신 1점, 신장상 2구, 조선초기 화폐인 상령통보 1점 등이 출토됐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 석탑은 내달 말까지 해체, 보수작업을 계속할 예정이어서 기단 내부에서 유물이 계속 출토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불교미술협회' 명칭에 오해 많다 한국불교미술협회등 해명 서한

'동국불교미술협회'는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 정규과정 내지 대학원 석사과정 출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뿐 아니라 동국대학교의 불교미술인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미술학과와 불교미술전공 동문회, 학생회, 한국 불교미술협회등 4단체는 최근 '동국불교미술협회에 대한 해명'이란 서한을 교계 언론 및 유관단체에 발송 이같이 주장

했다. 이들 단체는 서한을 통해 "동국불교미술협회"는 동대출신 몇몇만을 포함한 특수 대학원 관리자 과정 내지 그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는 이익단체"라며 학부 및 석사과정 출신자들과 재학생들에게 많은 오해와 창작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불교미술협회의 한 간부는 "이것은 우리 모임을 모라하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

한적한 숲에 있는 느낌, 녹수청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입니다

녹수청산

우리 것을 고집합니다.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차문화를 이어갑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한복판에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고집을 부리는 곳이 있습니다.

● 녹차 / 민속차 / 약차 / 건강식(죽)을 최고의 재료를 엄선하여 만듭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행 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의 장소로도 좋습니다.

다원 녹수청산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 736-3782 • 교통편 전철 1호선 중각역, 8호선 인곡역 / 버스 82, 69, 84, 159, 331, 588-2